

안동 도진마을의 근대기 주택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rn Housing Type of Do-Jin Village in An-Dong

박 정 훈* 유 재 우**
Park, Jeong-Hun Yoo, Jae-Woo

Abstract

Traditional villages formed their own indigenous residential cultures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nature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Since the influential factors have changed in modern period, the forms of housing have gradually changed and were also replaced by new types.

This study aims to view the changes of the traditional housing in modern period through case studying the traditional village. The result can be used as a preliminary data for another research.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Do-Jin village, Buckhoo-myun, in An-Dong which has a regional particularity and diversity of housing forms.

키워드 : 안동 도진마을, 주택유형, 전통주택, 근대주택, 주택변용

Keywords :An-dong Do-jin village, Housing Type, Traditional Housing, Modern Housing, Housing Modification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우리나라는 근대기에 있어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 이후 개량된 온돌 설비나 입식 부엌시설의 도입 등으로 주거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 마을에서에서는 자연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지역 기반의 토착적인 주거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기의 환경변화 요인의 수용으로 점차 주택형태가 변용되거나 또는 지역 토착 기반과 다른 새로운 주거형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마을의 전통주택유형의 실태조사를 통해 근대기¹⁾에 나타난 주택유형과 변용 양상을 살펴 우리나라 근대기 주거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남기 고자 한다.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근대기 주거형태로의 변용양상과 변화의 시차가 다르게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통마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거형과 주거형간의 특성을 비교해본다. 향후, 본격적으로 전통마을이 근대주거로 이행되는 연결 고리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주거형의 변화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안동지역의 평지주거권과 태백산맥 주변 산지주거권역의 접경지역에 해당되며,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하는 주문화권 중첩 지역²⁾인 안동시 북후면

도진마을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안동 북후면 도진마을에 대해 현장 및 실측 조사를 통해 마을의 구조와 근대기에 나타난 주택유형의 평면적 변화와 근대적 변화 특성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현지답사를 통해 마을의 배치 현황, 사진촬영, 실측조사 및 주민면담을 실시하고, 사전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한 마을의 개황 및 마을의 주택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마을답사와 실측자료 분석을 통한 마을의 배치 및 구조를 파악하였고, 주택의 유형을 분석하고 변용사례를 통하여 주생활 실태를 조사하였다.

향후 분석된 자료와 연구사례를 종합하여 도진마을 변화양상과 전통주택에서 근대기 평면형으로의 변용 양상과 변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 현장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기간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을 통한 지역과 마을의 상관성 조사 • 대상 마을 선정 및 기초연구 조사 • 문헌 및 사례 연구조사 	2009.1.1-2.28
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마을 관찰 및 방문 • 민가 실측 조사 • 주민 면담 	2009.7.30-8.1

* 정희원(주저자),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정희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1) 본 연구에서 다룬 주택은 우리나라 주거사에서 근대기에 속하는 1900년대 초부터 중반 이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2) 도진리 지역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영주

와 경계를 형성하는 태백산맥 이남의 문화권과 경계지점에 해당되며, 동으로는 봉화, 서로는 예천과 인접한 안동문화권에 속한다.

2. 도진리 마을의 배치 및 공간구성

2.1 도진마을의 형성 배경³⁾

도진마을이 있는 안동지역은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에는 영양, 청송, 서에는 예천, 남에는 의성, 북에는 영주와 봉화가 인접한 접경지역이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교통이 발달되어 주변 지역문화와 교류가 활발하였다. 주변지형은 북쪽은 고산지대이며 남쪽은 중간 산지로 분지를 이루고 있다. 도진리는 예로부터 산지 아래의 분지에 도나리, 새터, 마사, 오금, 금상계 등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왔다. 도진리의 본동인 도진마을⁴⁾에 약 350년 전에 동래 정씨 정부운(鄭浮雲)씨가 정착하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에 오금, 신기, 하마사리 마을이 병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6년의 세대수는 본동인 도진(道津)에 62세대, 마사에 36세대, 새터에 10세대, 오금에 6세대, 금상계에 3세대로 전체 117세대였다. 2001년의 경우에는 전체 107세대에 284명으로 가구수가 계속하여 줄어드는 추세이다.



사진1. 도진마을 항공사진으로 본 전경

2.2 마을의 배치 및 특성

도진마을은 마을 앞으로 낙동강의 지류가 흐르고 천등산 산자락 아래에 예천임씨 종가집이 위치하며 그 뒤쪽으로 집들이 가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주택은 산지지형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지대가 낮은 지역은 농사일에 필요한 우사와 창고들이 위치하고 있다. 마을 내에는 건립시기가 비슷한 다양한 주택유형이 혼재하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3) 안동시 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참조 제작성

4) 도진마을은 도나리·도담촌(刀菴村)이라고도 불린다. 마을에 정착하기 위하여 큰 황무지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칼로 베어내고 논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칼을 사용하여 풀을 베고 논을 만들었다고 해서 칼도(刀)자에 논답(畝)자를 써서 도담촌이라 불렀다. 또는 마을 앞에 냇가 흐른다고 해서 나리라고도 불렀으며 지하수가 풍부하여 도나리라 했다. 한자표기로는 나루 진(津)자를 써서 도진(道津)이라 한다.

된 예천임씨 종가집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최근에 건립된 주택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도진마을의 주거공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마을의 영역이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면적 또한 종가집 주위로 배치된 주택의 대지면적이 넓고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진리 마을 회관은 도로를 중심으로 종가집을 마주보고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예천임씨 종가집이 도진마을의 상징적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진마을은 전체적으로 배산임수형(背山臨水型) 배치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 내 주택의 주출입구는 정남향이나 남동쪽이 아닌 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산약길과 산약길에서 빠져나온 샅길에 대향 배치 되어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주출입구가 배치되어 있는 집들은 주로 一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북쪽 지역과 산자락 아래 지역에서는 ㄱ자형과 여간형 계열의 집들이 분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축된 조적식 주택도 마을의 전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주로 여간형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유형이다.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우사(牛舍)나 창고 등을 부속채로 보유하고 있다. 축사에서 한우를 기르거나 밭농사나 산약을 재배하고 있다.

3. 도진마을의 주택유형

3.1 주택의 평면유형

도진마을에는 재래형 주택과 조적조현대식양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재래형 주택은 안채를 기준으로 뜰집이 2채, 一자형은 10채, ㄱ자형은 20채, 여간형 주택은 8채가 조사되었다⁵⁾. 신축한 조적조 양옥주택은 전체가 20채로 조사되었는데, 그중 1990년대에 지어진 적벽돌 조적조 주택이 10채로 50%에 이른다. 비주거 건물로는 대부분이 생업과 연계된 우사와 탈곡, 농기구 창고 등 부속사가 대부분이고, 교회와 사당이 각각 1채, 2채가 있다. 반가형의 뜰집과 민가형의 홑집형, ㄱ자형 그리고 여간형 계열의 겹집형 등 다양한 주거형이 공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주거용 주택 중 전통주택형이 67%(40/60)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주택 경관중심의 마을 공간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표2. 도진마을의 주택유형

구분	유형	가옥수	
주거	재래형주택	뜰 집	2
		一자형	10
		ㄱ자형	20
		여간형	8
	조적조주택	평슬라브 조적조 양옥	7
적벽돌 조적조 양옥		10	
전원주택형		3	
비주거	가건물	우사	15
		탈곡, 창고	35
	기타	교회	1
		사당	2
계		113	

5) 주택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안채가 소실되어 별채만 남아있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붕은 팔작지붕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우산각 지붕의 뜰집 2채와 맞배지붕과 우진각 지붕은 각각 1채씩 조사되었다. 별채의 경우는 안채와 달리 대부분 우진각지붕과 맞배지붕이다.

표3. 도진마을 안채 지붕유형

안채의 지붕유형		가옥수
구분	맞배지붕	1
	우진각	1
	팔작지붕	34
	우산각지붕	2
계		38

지붕재료는 전통기와, 시멘트 일식기와, 슬레이트 기와 및 함석기와 판넬 4가지로 조사되었다. 슬레이트와 기와 형태를 가진 함석기와 판넬지붕의 비율은 비슷하고 기와의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1970년대에 지어졌거나 비슷한 시기에 보수한 가옥은 평슬라브나 시멘트 기와 또는 슬레이트 지붕이고,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지붕을 보수한 경우는 대부분 기존 지붕에 공사가 간편한 함석기와 판넬지붕을 얻어 개수하였다. 예천임씨 종가집과 같이 주택 규모가 큰 경우는 전통와가(瓦家)이다.

표4. 도진마을 안채 지붕재료

안채의 지붕재료		가옥수
구분	전통기와	2
	시멘트기와	5
	슬레이트	15
	함석기와 판넬	15
계		38

4. 주택평면 유형별 특성

경북북부 지역인 도진리는 전통적으로 여간형 주택과 一자형 주택유형이 공존한 안동주거문화권역에 속한다. 1970년대 이후 도진마을은 一자형 주택과 조적식 주택이 이식되며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도진마을에 남아있는 각 주거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뜰집

뜰집은 중상류계층의 口자형가옥으로, 지역적으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는 一자형(여성영역), 사랑채는 ㄴ자(남성영역)형으로 결합된 평면계획이다. 여성영역은 안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안방이 위치하고, 왼쪽으로 상방 아래쪽에 부엌이 배치되어 있다. 안방 아래공간은 부엌과 마구가 있다. 남성영역은 사랑방을 중심으로 뒷마루가 있고, 사랑방 뒤쪽으로는 고방이 배치되어 있다.

6)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19~120 : 뜰집 지붕유형을 안채지붕과 처마선과 기와꼴 형태에 따라 서산각, 우산각,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진마을에는 두 채의 뜰집이 남아있다. 한 채는 예천임씨 종가집이고, 현재는 공가로 있다. 다른 채는 친척 관계가 되는 임봉섭씨 가옥이다. 임봉섭씨 가옥은 1935년경에 신축되었으나, 2007년 함석기와 판넬로 지붕을 개보수하였다. 2칸 규모의 마룻바닥에 온돌보일러를 설치해 거실로 개조해 쓰고 있으며, 2칸 규모의 안방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 넓게 사용하고 있다. 정지가 있던 자리는 입식부엌으로 개조하여 싱크대를 설치하였고, 마구가 있던 자리는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였다. 마룻바닥이었던 고방은 온돌방으로 개조하여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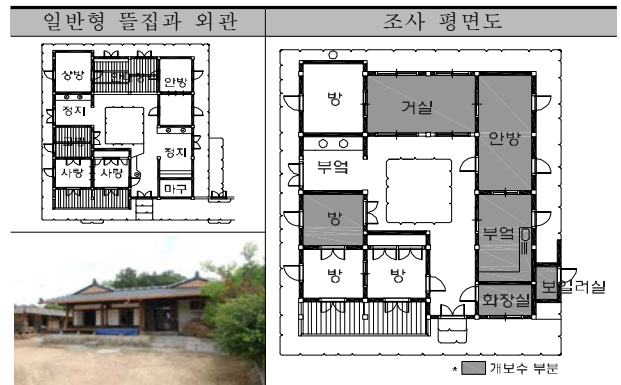


그림2. 뜰집형 임봉섭 가옥

4.2 一자형 주택

도진마을에 나타나는 一자형 주택은 남부형 홑집 평면형으로, 주로 규모가 전면 4칸, 측면 1칸집이다. 마루를 중심으로 방이 양쪽으로 안방과 사랑방으로 분리되어 있고, 부엌이 안방과 면한 한쪽 끝에 배치되어 있다.

박영자씨 가옥 사례는 전형적인 남부형 一자형을 따르고 있으며 마루부터 사랑방까지 뒷마루가 이어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1950년경에 지어진 집으로 마루와 사랑방 뒤쪽에는 블록조로 방과 부엌공간을 연장해 기능을 확장하였다. 1990년대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를 하였고, 2009년에 다시 함석기와 판넬 지붕을 얻어 수리하였다. 슬레이트 지붕의 부속사 2채가 남아있고, 비교적 건립당시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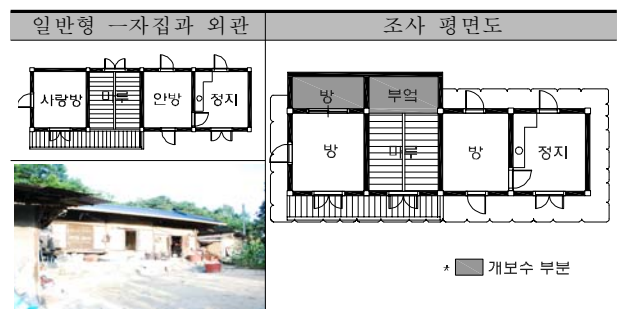


그림3. 一자형 박영자 가옥

4.3 一자형 주택

一자형은 도진마을에서 가장 보편적인 평면유형에 해당된다. 평면형은 중부형의 一자형 평면 유형과 같이 안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방이 배치되고, 안방이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고, 안방의 아래쪽에 부엌과 광이 나란히 배치된다.

장영도 가옥은 1978년에 중부형 ㄱ자형 평면 형태로 신축되었다. 전면 규모는 4칸 반으로 사랑방 끝에 반 칸 크기의 마루가 배치되어 있다. 도진마을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며, 방과 마루를 개조하여 현재에는 거실 겸 부엌으로 쓰고 있다. 부엌이 있던 자리는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이 있던 자리는 화장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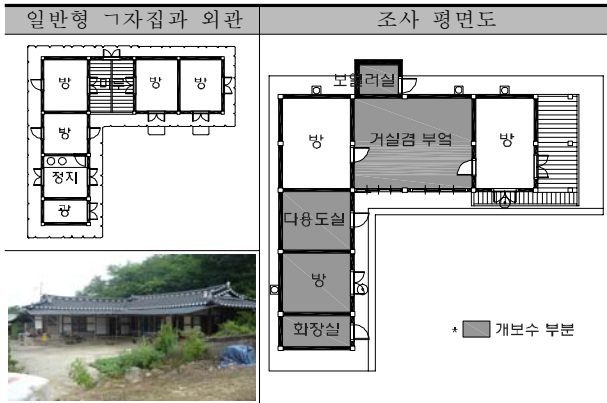


그림4. ㄱ자형 장영도 가옥

4.4 여칸형 주택

도진마을에서는 여칸형 주택이 8채가 현존하고 있다. 여칸형(7) 주거는 주로 태백산맥 주변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산간형 가옥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여섯 칸 집 형태를 기본형으로 한다. 주출입구가 전면에 위치하고, 봉당과 면해있다.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방이 배치되고, 안방과 면하여 정지가 위치하고 보통 사랑방아래 공간에 마루가 위치한다. 정지에서 출입이 가능한 즉입 평면형이다.

도진마을에는 현재에도 100년이 넘는 여칸집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방이 나누어지고, 마루가 있던 자리에 사랑방을 배치하고, 정지 아래쪽에 반칸 크기로 정지를 돌출시켰다. 전면3칸 측면 2칸반의 구조를 보인다. 사랑방은 뒷사랑과 아랫사랑이 위치하고 그 아래쪽에 작은 툇마루를 두어 사랑채 기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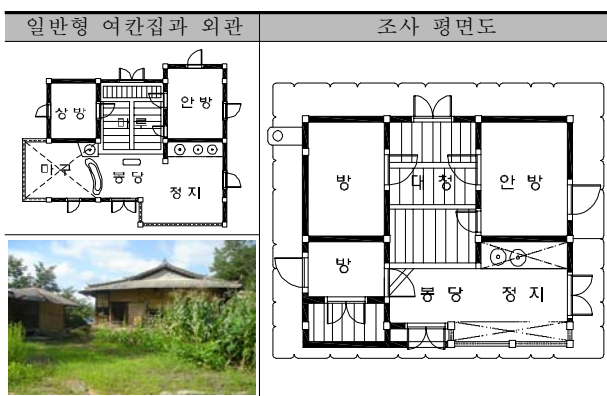


그림5. 여칸형 (공가)

4.5 적벽돌 조적식 가옥

도진마을의 신축양옥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유형으로서 적벽돌 조적식 가옥이 있다. 모두 1990년대 이후 비

7) 조성기, 한국의 민가 p277, 여칸형주택은 여칸집, 두리집, 까치구멍집 등으로 불리며 태백산 주변지역, 특히 영남에 가까운 지역에 분포하는 겹집형태이다.

슷한 시기에 신축되었고, 평면구조는 당시 도시형주택 평면과 유사하다. 즉, 전면부는 안방-거실-건넌방, 후면부는 부엌과 식당-욕실-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겹집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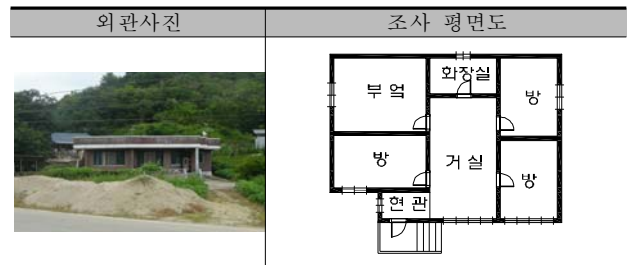


그림6. 적벽돌 조적식 장도섭 가옥

5. 결론

본 연구에서 도진마을을 대상으로 주택의 배치와 평면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배치는 주출입구는 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가로에 대향해 있다. 전체적으로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배산임수가 기준이 되고 마을의 지형에 따른 배치형태를 보인다.

둘째, 도진마을의 주택의 유형은 들집, 一자형, ㄱ자형, 여칸형, 근대양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북북부 지역인 도진리는 전통적으로 안동주거문화권역의 주요 주거형인 여칸형 주택과 一자형 주택유형이 현재까지 공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ㄱ자형 주택과 조적식 주택이 추가로 이식되며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되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마을 영역은 예천임씨 종가집이 중심적인 공간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고, 북쪽으로 주거의 공간영역이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넷째, 주택의 평면은 주거환경과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원형의 형태보다는 근대적 주거환경 변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용한 다양한 변용사례가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도진마을은 안동의 주거문화권과 태백산맥 이남의 주거문화권이 서로 공존하고 있고, 근대기의 새로운 주거형이 혼재되고 있는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에 보다 점차 편리성을 위한 근대적 주거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마을의 형성과 근대기 이후 마을 공간의 변천과 주택변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2. 조성기, 「여칸집의 진화」, 한국건축역사학회, 2006, 춘계 학술 발표대회 특별강연 자료
3. 최장순, 「영동지역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11호, 2002
4. 김경희, 「주거문화권 중첩지역의 민가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